



중국의 항만 처리물동량 높은 증가세 유지 올 1/4분기 처리량 8.7억톤으로 16% 증가 석탄 등 주요물동량 증가세는 다소 완화

중국의 항만 생산성은 올 들어서도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증가폭은 전년도에 비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 1-3월 중 중국의 주요항만에서 처리된 물동량은 8억7,000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했으나 성장폭은 전년도보다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중 중국 연해 주요항만의 석탄 및 제품 처리물동량은 1억5,000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8% 증가했으며, 석유천연가스, 물동량 증가세도 다소 둔화되었다.

최근 중국의 원유 소비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국내 원유생산량은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원유의 대외의존도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올 1/4분기중 연해 주요항만에서 처리된 석유천연가스 및 제품 물동량은 9652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9.3%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철광석 수입물동량 증가율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2년간 중국의 철광석 생산량 증가세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국내 철광석 자원은 상대적으로 타이트해 철광석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입량 확대는 국제 철광석가격의 폭등을 초래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금년 3월1일 공포한 철광석수입허가제는 최근 수입철광석 물동량에는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나, 만약 수입기업이 단기 내에 허가증을 받기 못하면, 제때 통관할 수 없어서 항만적체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수입 관리정책이 점점 엄격해 짐에 따라 철광석의 대외수입 항만 물동량 증가세가 약간 낮아지는 형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올 1-3월중 중국 항만에서 처리된 금속 철광석 물동량은 1억톤으로 작년동기대비 25.0% 증가했으며, 이중 철광석 수입물동량은 6,452만톤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0.4%가 증가했다.

이와함께 중국의 항만에서 취급된 컨테이너물동량의 증가세는 둔화되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무역은 여전히 성장세로 항구 컨테이너 물동량의 장기 지속적인 증가를 야기했다. 2002년 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중국 주요항만 컨테이너물동량의 월별 증가지속세는 여전히 20%이상을 유지했다. 작년 12월, 증가율은 18.1% 다소 떨어졌는데 올해 설날이 2월에 있어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다시 13.7% 하락했다. 올 1/4분기 중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물동량은 1,582만TEU로 전년대비 23.7% 증가했다.

한편, 중국 정부의 철광석 수입허가제 시행으로 인도로 부터의 Spot시장 구입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SY의 Peter Norfolk에 따르면, 작년 인도의 대중국 철광석 수출물량은 5,000만톤이었으며, 대부분이 Spot시장 구매였다. 그러나 중국의 수입허가제 시행으로 중국내 108개 회사가 철광석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올해 인도의 철광석 수출물량은 2004년대비 2,000만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SSY는 전망했다.